

브라질6호 통신위성 발사 불, 아리안스페이스가 맡아

프랑스의 우주항공업체인 아리안스페이스가 브라질의 통신사업자 엠브라텔의 통신위성 발사업체로 선정됐다. 아리안스페이스는 최근 엠브라텔의 6번째 통신위성인 'BRASILSAT B4'를 발사하기로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통신위성은 내년말 프랑스령 기니아섬에 위치한 기니아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아리안스페이스는 엠브라텔의 통신위성 5기를 지난 85년부터 발사해 왔다.

러시아, 미르호에 재출자

러시아 정부는 1999년 7월, 미르의 대기권 재돌입전에 미르 우주정거장에 3명의 승무원을 보내기 위해 자금을 출자하기로 했다. Russian Space Agency는 본래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법안에 상정된 액을 출자하고 그 이상의 조치를 재차 요구해 왔다. 미르 우주정거장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궤도를 이탈하여 조절 불가능한 상태로 지구대기에 돌입, 통과된 잔해들이 전세계의 거주지역으로 쏟아지는 경우이다. 8월 3일, 미르호 승무원을 보내려는 계획은 전기요

금 채납과 다른 임무를 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연기되었다.

정부의 최근 미르우주정거장 지원에 대한 확약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명의 승무원을 미르에 보내는데 필요한 2억 달러는 프랑스에게 차입하게 됨은 물론이고, 1999년에는 두 명의 승무원이 더 임무수행을 하는데 이에따라 큰 자금이 필요하고, 또한 이미 미르에 안착한 기계와 더불어 3개 무인 접근장치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첫 화성 탐사용 로켓 발사

일본이 7월 4일, 첫 화성탐사용 로켓을 발사했다. 8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Nozomi라 불리워지는 Planet B가 가고시마에서, 31m 높이의 M-5 고체추진 보조로켓에 의해, 타원형의 지구 궤도상으로 발사되었다.

540Kg의 Nozomi는 1999년 10월경 화성에 도착하는 700백만 kilometer의 긴 여정을 운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모터를 점화하여 급속히 운행된다.

한편, 이에 앞서 9월, 10월경 두 번의 달 주변궤도 근접통과가 있을 것이다.

Nozomi는 약 135Km의 고도

로 화성주위를 돌며, 캐나다, 독일, 스웨덴, 미국등에서 기부된 장비를 포함, 14종의 기계를 사용하여 일련의 과학적 관측을 할 예정이다. 우선 태양풍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화성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화성의 먼지 폭풍시를 포함해서 화성표면의 사진을 찍을 계획이다.

일본은 앞으로 두 번 더 화성탐사용 비행을 계획중인데 1999년 LunarA와 Muses C가 2002년에 소행성으로부터 샘플을 가지고 올 예정이다.



두 번째 보조 추진로켓이 가고시마에서 Planet B를 발사하였다

인도, 우주산업에 더 많은 투자계획

인도는 1998-9 국고예산에서 우주산업의 예산을 10억달러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런 증가는 그 기간동안 31% 증가된 응용과학 예산의 일부이다. 항공우주국의 새 예산 38억 5천만 달러는 Insat3 국제통신위성의 다음 세대의 연구를 포함, 지구정지궤도 위성의 발진우주선의 개발에 이용될

것이다. 인도는 2003년까지 고유 발진 우주선으로 15개 이상의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고 극위성발진 우주선을 개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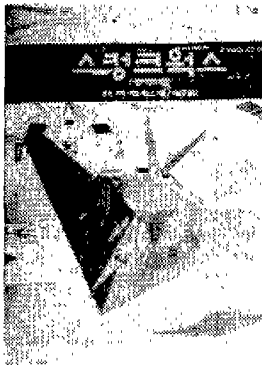
오비탈, 26억불 계약수주

오비탈은 지구정지궤도에 올라 있는 두 개의 광범위 통신위성발진을 하게 할 NewYork-based Visioin Star로부터 26억달러 계약을 수주했다. 2000kg, 30 Ka-

band 자동무선 인공위성이 113W위치에서 정지한 상태로, 미국으로 최고 스피드의 인터넷 접속과 전송, 텔레비전회의와 프로그램 방송을 공급 할 계획이다. 로켓발진은 아리안 4 또는 5와 델타3중 하나 일 것이라고 오비탈사는 전했다. 오비탈사 회장 데이비드 톰슨은 이계약은 Orbital이 지구 정지궤도위성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주회사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신간안내

스컹크웍스-스텔스기의 비밀



“스컹크웍스”는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는 비행기 F-117A를 비롯해서 고공정찰기 U-2, 음속 3배의 정찰기 SR-71, 미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22 등, 항공사에 남을 항공기를 만들어 낸 미국 록히드 항공사 특별개발부의 이야기다. 1975년 1991년까지 “스컹크웍스”란 별명으로 알려진 이 개발부 책임자로 있었던 저자 벤 리치는 어떻게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 개발부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중국본토에 침투시키기 위서 개발

했던 무인정찰기 D-21,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는 스텔스함 시세도우, 10만 피트 상공을 음속 2.5 배로 날 수 있는 수소동력 항공기 등 실패의 기록도 있고, 실제로 U-2와 SR-71로 러시아와 베트남, 북한의 상공을 비행했던 조종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어있다.

벤 리치는 단순히 극비 항공기의 개발 내막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오늘날 미국의 항공산업이나 군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한다. 그는 스텔스란 이름으로 알려진 시스템이 혁명적인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설명한다.

벤 R. 리치·레오 재노스 지음
이남규 옮김
도서출판 한승 발간